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

성경 사도행전 14:8-18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은혜의 찬양 264장)

- | | |
|--------------------|------------------------|
| 1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 [후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
|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
|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
| |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
| 2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
|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
|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 |

1



2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송가 358장)

- | | |
|-----------------------------|-----------------------------|
| 1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 3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
|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
| 2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 4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
|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

2



[후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말씀 읽기 사도행전 14:8-18

-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본문 배경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조성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소수의 헬라인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범신론적 신관을 가졌으며,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습니다. 이곳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10b절)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 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바울은 무슨 말을 했나요? (10절)

답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했습니다.

해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10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2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1-13절)

답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며 이들을 신격화했습니다.

해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말렸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15절).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만은 다른 모든 죄가 자라는 기반이자, 그 생성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적용

1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요 16:24)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9-2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

작곡 조미진

♩ = 108

영 생 은 곧 유 일 하 신 참 하 나 님 과
그 가 보 내 신 자 예 수 그 리 스 도 를
아 는 것 이 니 이 다 - -
요 한 복 음 십 칠 장 삼 절 아 멘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지만, 믿음만큼은 특별한 가정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끝까지 겸손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